

<서평>

##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 부종풍\*의 『내 직업은 양공주』\*\*를 읽고

하 채 현\*\*\*

“이름?”

“응우옌 티 바”

“나이?”

“스물 다섯 살”

“직업?”

“먼저 부세관과 결혼하고, 다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조용! 직업이 뭐냐고, 누가 남편을 물어봤어!”

“다음에 군인과 결혼했어요.”

“직업 없어?”

“...”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이오?”

“하는 일? 하는 일이라면... 서양인한테 시집가는 건데요!”

---

\* 지은이 부종풍(Vũ Trọng Phụng, 1912-1939)은 짧은 생애 불꽃같이 살다 간 베트남 작가다.

\*\* 원제: Kỹ nghệ lấy Tây(Nhà xuất bản Hà Nội, 1936). 이 책의 제목은 코넬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에서 *The Industry of Marrying Europeans* 라고 번역된 바 있다. 부종풍에 대한 논문은 발견되지만 영문판 책은 찾지 못했다. 이 책의 1장을 <인문예술>(2017, 소명)에 공동 번역자와 소개한 바 있다. 곧 한국어로 번역 출간될 예정이다.

\*\*\* 극동대학교 조교수

1장의 장면이다. 스물 다섯 살의 여성이 엄숙한 법정에서 대중들을 웃게 만들었다. 『내 직업은 양공주』는 신문 <새로운 하루><sup>1)</sup>에 연재된 르포다. 연재물을 모아서 1936년 하노이에서 책으로 묶었다. 이 르포는 당시 베트남에 주둔하던 프랑스 군인들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처음에는 두툼하지 않아서 빨리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장부터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장면 하나하나가 충격적이었다. 작가 부종풍의 필체 자체가 난해했다. 비속어와 관용구, 베트남 속담과 전통 시, 베트남 전설 등의 비유가 계속 가우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길수록 부종풍의 세계에 몰입되어 갔다. ‘사건 목격-사건의 원인-당사자와 나의 대화-나의 술회’ 순의 일정한 패턴이 당혹감을 완화시켜 주었다.

흥미로운 점은 화자 부종풍이 목격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다. 14번 결혼했음을 자랑하는 디미톱, ‘너는 이제 이 집에서 잘 수 없다’고 소리치며 남편을 내쫓는 부인, 정략결혼으로 도망쳐 온 조키를 팔아 넘기는 고모, 유부남을 사랑한 틱과 사장님한테 강간당한 아이<sup>2)</sup>의 이야기, 자신의 딸이 누구의 딸인지를 숨겨서 양쪽에서 양육비를 받는 여인, 친엄마로부터 매질당하는 딸 등이 부종풍이 목격한 현상이다. 부종풍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상황에 대한 묘사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했다.

이야기가 무르익을 5장에서 다루어진 ‘부종풍과 수잔의 대화’는 아마도 부종풍의 메시지를 압축하는지 모른다. 수잔은 아이 아주머니의 외동딸로 베트남 전통 의상이 아주 잘 어울리는 갓 스무 살의 아름다운 여자다. 수잔은 이 책에서 4장과 5장에 등장하고 9장에서 히엡 푼(프랑스 군인)과 결혼한다.

1) <Nhật Tân> 1930년대 베트남에서 발행되었던 신문

2) 아이(Ái)는 여자 이름

“나는 조국이 없어!”

“혼혈아와 결혼하면...”

아픔을 억제하고 수잔은 다시 평정을 되찾고 덧붙여 말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혼혈 남편도 프랑스 국적이 있지만 저를 경멸할 수는 없지요. 남편이 부자라면 저는 드레스를 입겠지요. 남편이 가난하고 단지 병사일 뿐이라면 저는 그저 베트남 전통 옷을 입겠지요. 저는 혼혈 고아들을 위한 학교에서 오래 동안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엄마 생각 안 하고 작년에는 프랑스에 갔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관료랑 결혼하고 싶어 그냥 하노이에 살면서 물건 파는 일을 찾아서 하며 매달 은전 몇 십 전 벌어서 옷이나 사 입었으면 혼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후략)”

인용한 부분은 5장 중간이다. 프랑스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수잔은 세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든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든지 수잔과 같은 처지의 혼혈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잔의 생각은 확고하다. 부종풍은 지나치게 현명한 수잔의 앞날이 평탄치 못할 예감을 느낀다. 수잔의 상황은 부종풍에게 새로운 인식을 던져 준다. 수잔은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지 싶지 않다. 헌신할 조국이 없으니 고통스럽지도 않다. 수잔은 베트남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도 않다. 수잔은 ‘평범하고 신사적이고 넓은 편견들에 관한 문제들을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는 머리를 가진, 수잔만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5장).’

여기까지 읽고 두 가지 문제가 나에게 도드라졌다. 첫째는 ‘혼혈아’라는 불합리한 용어에 대해서다. 혼혈아(混血兒)는 ‘혈통이 다른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혈통이 다른 종족이라니. 뜻대로라면 모든 결혼은 혼혈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혈통을 보존하려 애쓴 신라는 많은 장애아를 출산하면서 혈통이 단절된다. 다양

한 좋은 종족 보존을 위한 필수요건 중 하나다. 굳이 베네딕트 앤더슨<sup>3)</sup>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 혹은 ‘민족’이라는 개념의 길지 않은 역사를 보건대 ‘혼혈아’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다. 크게 볼 때 우리 모두는 태생적으로 혼혈아다. 혼혈인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혼혈인 너가 있고 혼혈이 아닌 내가 있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제국의 지배 속에 놓인 식민지 여성의 삶에 대해서다. 1930년대 베트남은 이미 약 90년 동안 프랑스령에 놓인 상태였다.<sup>4)</sup> 프랑스는 지배 체제 구축을 위해 베트남의 문화와 사회의 요소들을 미개하게 취급했을 것이다. 내면화된 열등의식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뿌리 깊게 박혔을 것이다. 식민지 여성 수잔에게 어떤 선택지든 그다지 효과적일 수 없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먹고 입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먼저다. 평범하고 신사적이고 낡은 편견이 없는 남편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은 약 32만 명(318,948명, 2016년 11월 다문화가족지원모털통계)의 외국인 주민이 있다. 그 중 2000년 초부터 매해 꾸준히 약 4만 명 정도의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교육통계<sup>5)</sup>에 의하면 약 11만 명의 학생들이 외국에서 이주한 부모를 두고 있다.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3) 대표 저서 『상상의 공동체』

4) 베트남은 1945년에 독립하였다.

5) 교육통계연구센터(kedi.cesi)에서 발표한 자료로 그림 【2017 부모 출신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한다.



2017 부모 출신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국에 베트남 부모를 둔 학생이 26.5%로 가장 많다. 국제결혼이 별난 일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 외국 여성 이혼 상담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의 이혼 상담도 늘고 있다. 수많은 선입견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바로 혈통주의와 국가 민족주의이다. 부종풍은 바로 이 지점을 친다.

『내 직업은 양공주』는 여성들의 소위 ‘결혼하는 기술’이란 일상적인 삶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서양 사람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수많은 결합이 행운인지 불행인지 추적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베트남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의식과 생활이 드러나고 부종풍의 풍자적인 세태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다.

내가 살고 있는 전북에도 베트남 엄마들이 많다. 나의 사촌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낳았다. 이들은 초등학생이고 딸은 유치원에 다닌다. 그녀가 무슨 이유로 한국에 왔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한편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러 다닌다. 시장이나 교회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무수한 그녀들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어디서든 이들과 함께 다.

부종풍은 수잔과 나란히 티 꺼우와 답 꺼우 거리를 걷는다. 그러자 수많은 양공주들이 부종풍과 수잔을 보려고 달려 나와서 북새통을 이룬다. 부종풍은 이들 양공주들이 못생겼거나 아름답거나 간에 다들 묘한 표정을 지녔다고 생각하면서 허우의 시를 개사한다.

“거울 속 모습이 발(簾) 속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풀과 나무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네.”  
“채반 위에 개떡, 맘에 들면 사고 내키면 준다네.”

부종풍(1912~1939)은 20세기 초 베트남의 유명한 문학가이자 언론인으로 워낙 풍자적인 작품을 써서 ‘베트남 문단의 이단아’로 알려져 있다. 강렬한 성 묘사로 강제 폐간되었다가 1980년대 이후에서 해금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에 대한 구미를 더욱 당기게 한다.

부종풍은 어느 날 덩치 큰 서양인에게 자신의 베트남 아내를 넘보는 놈뎡이로 오인 받고 실랑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착수하여 『내 직업은 양공주』라는 르포 걸작을 써냈다.

부종풍은 베트남의 발자크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그렸다.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일정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부종풍의 서술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금 등장인물 편에 서게 하여 기존에 자신이 가진 편견을 걷어내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1936년 출간 당시 발문을 쓴 풍뎡닥(Phùng Tất Đắc 베트남의 시인·작가, 1907~2008)은 『내 직업은 양공주』를 ‘문예의 방향에 선을 긋는 작업’이라고 칭송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상적이고 유연하며 혼란하고 복잡한 상태를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중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온유하지 않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을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고명섭 한겨레논설위원)도 있다. 실제로 부종풍의 짧은 삶을 상기할 때 끊임없이 쓴 작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결론 격인 10장 ‘남은 이야기’에서 부종풍은 “서양인과 동양인 사이의 정신적인 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사례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내가 서양인에게 의심을 씨앗을 뿌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아내가 매매 목적으로 서양인과 결혼한다는 것을 들추어냄으로써 현재 합법적으로 결혼한 많은 프랑스-베트남 가족의 아름다움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책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에 들어 온 네가 한국에 적응하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구성원인 베트남의 문화와 역사를 살피게 한다. 또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는 바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그것들이 밝히지 않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나가도록 보살피는 지킴대가 될 만하다. 그런 면에서 『내 직업은 양공주』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선입견을 걷어낼 성찰을 제공하고 일상적인 충들을 피하는 완충제가 될 수 있다.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을 이해하는 겸손한 방법이 이 책에 들어 있다.

